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발전협의회
Innovation College of Korea

THE HiT Magazine

JANUARY 2025

HIT 100년, 미래를 선도하는 의미와 가치가 살아있는 매력적인 대학



HEADLINE

2024 / 4분기 혁신 HOT ISSUE

교육혁신

2024 학습역량 경진대회
나만의 학습법 콘텐츠 공모전

산학협력

HiT 산학협력 직무박람회
취업 역량 강화를 위한
맞춤형프로그램

기타혁신

AI 플랫폼 활용 디지털 튜터 양성
ChatGPT, PPT, WRTN,
TOONIG 실습교육

공공성

총장님과 함께하는 열린토론회
소통과 공감의 캠퍼스 문화
조성을위한 토론회 개최

활동소감

2024 혁신지원사업 모니터링단
활동 소감 및 의견 건의
(물리치료학과 조득현 외 4명)

2024년도 우리학교 이모저모

행사

제 17대 총장 취임
상반기 / 하반기 교수 정년 퇴임식
청운 축제행사 개최
청운 체육대회 행사 개최
글로컬대학 30 출범식
총동문회 송년의 밤 개최
여자 소프트볼 팀 창단식 개최

성과

벚꽃길 마라톤대회 봉사활동
행복한 어르신복지관 의료봉사활동
주얼리디자인과, 산업디자인대전 수상
제38회 교내 영어경시대회 성료
반려동물과, 동물보건사 신설기관 인증
작업치료학과, 국가시험 전원 합격 및 수석합격자 배출
물리치료학과, 국가시험 수석합격자 연속 배출

Vol. 2

(34504) 대전광역시 동구 충정로 21 대전보건대학교 (가양동 77-3)
대전보건대학교 ALL RIGHTS RESERVED @

대전보건대학교
DAEJEON HEALTH UNIVERSITY

4분기 교육혁신 핫 이슈

Hot Issue

NEWSLETTER

혁신적 학습법 공유 및 HIT 5C 역량 강화 도모

2024 학습역량 경진대회, 나만의 학습법 콘텐츠 공모전

기간 | 2024. 9. 2.(월) ~ 2024. 10. 30.(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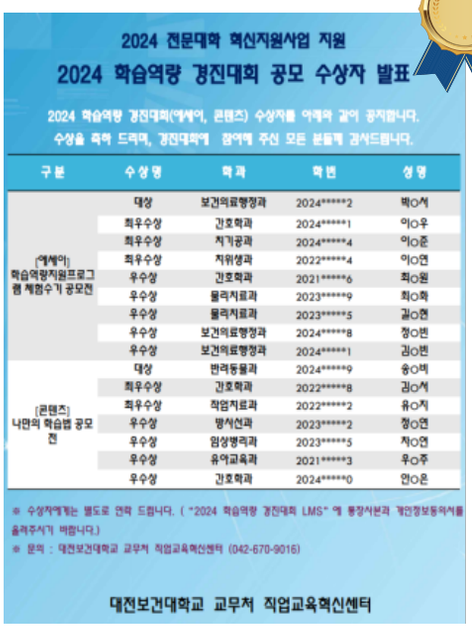
주최 | 교무처 직업교육혁신센터

" 학습역량경진대회, 학생들의 열정으로 빛나다. "

우리 대학은 2024년 혁신지원사업의 일환으로 '학습역량경진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며 학생들의 자기주도적 학습능력과 의사소통 능력 등 HIT 5C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이번 대회는 학생들이 학습 중 터득한 노하우와 우수한 교수법 사례를 발굴하여 동료와 선후배 간 학습법을 공유하고, 이를 통해 학생들의 전반적인 학습역량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었다.

특히, '학습역량지원프로그램 체험수기 공모전(에세이)'과 '나만의 학습법 공모전(콘텐츠)'을 통해 수많은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학습법을 발굴하며 그 어느 때보다 풍성한 성과를 거두었다.









'학습역량지원프로그램 체험수기 공모전'과 '나만의 학습법 공모전'에서 나온 수많은 혁신적 아이디어는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함과 동시에, 대학의 혁신적 학습 환경 조성에 큰 역할을 했다.

융합역량(Convergence)과 소통역량(Communication)은 물론, 창의역량(Creativity), 협업역량(Collabora-tion), 시민역량(Citizenship) 등 HIT 5C의 핵심 역량을 골고루 개발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

앞으로도 우리 대학은 학생들이 스스로의 학습 잠재력을 발견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며,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인재를 양성하는 데 힘쓸 계획이다.

4분기 교육혁신 핫 이슈

Hot Issue

NEWSLETTER

대학-지역사회-지자체 협력으로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역사회연계 교과목 운영지원 프로그램, 대전보건대학교와 함께하는 김장 나누기

일자 | 2024. 11. 12.(화)
장소 | 호텔외식조리과 실습실





"대학-지역사회 협력이 만들어내는 시너지!"

대전보건대학교는 11월 12일 동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연계해 '다문화가족 김장 담그기' 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김장철을 맞아 지역 내 결혼이민자들에게 한국 전통 문화를 체험할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학생들에게는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배운 지식을 실천할 수 있는 장을 마련했다.

행사에는 결혼이민자 16명을 비롯해 대전보건대학교 호텔외식조리과 학생들과 동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관계자 등 총 30여 명이 참여해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김장을 함께 담갔다. 이번 활동은 지역사회연계교과목운영지원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진행됐으며, 대학-지역사회-지자체 간의 협력체계를 기반으로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졌다.

'지역사회연계교과목운영지원프로그램'은 대학이 정규 교과 과정에서 학습한 개념을 지역사회에서 실질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혁신적인 교육 모델이다. 이번 김장 담그기 행사는 호텔외식조리과 학생들이 수업 중 배운 조리 기술과 김장 문화를 지역사회로 확장해 적용한 대표적인 사례로, 이론과 실무를 결합한 교육의 장으로 평가받고 있다.

행사를 주관한 대전보건대학교 김성희교수는 "학생들이 수업에서 배운 지식을 활용해 지역사회와 함께 의미 있는 활동을 진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뜻깊다"며, "지자체와 지역사회의 지원이 있어 가능했던 협력의 좋은 사례"라고 말했다. 특히 이번 행사는 지역사회의 다문화 구성원들이 한국 문화에 자연스럽게 녹아들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학생들이 직무 경험을 쌓고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참여 학생들은 "지역사회와의 협력 활동에 참여해 우리가 배운 기술이 실질적으로 쓰일 수 있다는 점이 뿌듯했다"며, "앞으로도 이런 기회를 통해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싶다"고 전했다.

앞으로도 대학, 지역사회, 그리고 지자체 간의 협력이 확대되어, 더 많은 학생들이 이와 같은 활동에 참여하고, 지역사회가 함께 성장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4분기 산학협력 핫 이슈

Hot Issue

NEWSLETTER

지역 고용 활성화와 직무 미스매칭 해소를 위한 산학 협력의 장
대전보건대학교, HiT 산학협력 직무박람회 개최

일자 | 2024. 11. 21.(목)
장소 | 대학본부 HiT포럼

"대전보건대학교, 취업 준비의 새로운 지평을 열다."



지난 11월 21일 'HiT 산학협력 직무박람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이번 박람회는 지역 고용 활성화와 산업체 현장과 학교 간 직무 미스매칭 해소를 목표로 진행되었으며, 약 843명의 학생들이 참여해 큰 호응을 얻었다.

행사의 오전 세션에서는 대전보건대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중소기업청에서 주관한 '우수 중소기업 탐색 및 취업 전략' 특강이 진행되었고, 오후에는 본격적인 직무 박람회가 진행됐다. 이번 박람회에는 22개의 기업과 기관이 참여해 학생들과 밀도 있는 상담과 직무 설명회를 진행했다.

이날 참석한 학생들은 중소기업의 취업 기회와 기업 문화에 대해 깊은 이해를 얻을 수 있었으며, 이번 박람회는 고학년뿐 아니라 저학년과 지역 고등학교 학생들도 참여해 진로 및 직무 적성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발전시키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졌다.





특히, 이번 직무 박람회에서는 '2024년 커리어 로드맵 경진대회'와 '자기소개서 경진대회' 시상식도 함께 진행되며 학생들의 취업 역량 강화를 위한 노력이 돋보였다.

"대회를 준비하며 저의 진로 방향성이 명확해졌습니다. 취창업센터의 진로 탐색 프로그램을 통해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취창업센터의 다양한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해 원하는 기업과 직무를 취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커리어 로드맵 경진대회 대상
바이오의약과 1학년 안숙영

이력서 경진대회 대상
간호학과 4학년 강지원



"취업성공디딤돌 프로그램을 통해 상담을 받고, 취업캠프에 참여해 이력서와 자기소개서 작성법을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었습니다. 특히 모의 면접을 통해 실질적인 취업 역량을 기우는 데 큰 도움이 됐습니다."

4분기 산학협력 핫 이슈

Hot Issue

NEWSLETT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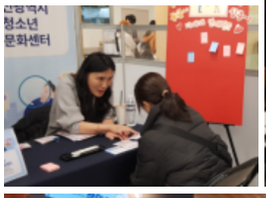
박람회를 마무리하며 이정화 총장은 "우리 대학은 글로컬대학30 사업 선정에 이어, 우수한 기업 및 기관들과 성공적인 일자리 창출 협력 모델을 구축하고 있다"며, "이번 박람회를 통해 학생들이 취업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 고용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또한, "학생 중심으로 수요자의 니즈를 파악해 내년 박람회에는 더욱 향상된 프로그램을 선보이겠다"며, "산학 협력과 취·창업 지원의 질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는 대전보건대학교가 지역 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더 많은 취업 기회를 창출하고, 학생들의 취업 역량을 강화하는 데 집중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번 산학협력 HiT 직무 박람회는 대전보건대학교가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성공적으로 추진한 산학 협력의 대표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박람회에 참석한 한 학생은 "이번 박람회를 통해 진로와 직무 적성에 대한 이해를 넓힐 수 있었다"며, "취업 준비가 막연했지만,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참여 기업 관계자 또한 "학생들의 열정이 돋보였다"며, "이러한 박람회가 기업과 학생 모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고 평가했다. 기업 관계자들은 박람회를 통해 학생들이 취업에 대한 관심과 준비가 잘 되어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고,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취업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고 입을 모았다.

대전보건대학교는 이번 박람회를 통해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며, 지역 고용 활성화와 직무 미스매칭 해소라는 목표를 성공적으로 실현했다. 대학은 앞으로도 산학 협력을 기반으로 학생들의 취업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 사회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지역 기업들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여, 학생들에게 더 많은 실습 및 취업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 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할 예정이다.

또한, 지속적인 산학 협력을 통해 학생들의 직무 능력을 향상시키고,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통해 지역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 이러한 박람회와 프로그램은 학생들에게 큰 도움이 되며, 지역 고용 시장의 발전을 촉진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4분기 산학협력 핫 이슈

Hot Issue

NEWSLETTER

창업 아이템부터 사업계획서까지, 창업의 A to Z 배우다.

HiT-Startup, 대전보건대학교 HiT 보건역량기반 창업캠프

일자 | 2024. 11. 27.(수) ~ 2024. 11 .28.(목)
장소 | 현대해상 금산 하이비전 센터

"창업의 꿈을 키운 1박 2일, 대전보건대학교 창업캠프"





대전보건대학교 취창업·대외협력센터는 11월 27일부터 28일까지 1박 2일 간 충남 금산에 위치한 현대해상 금산 하이비전센터에서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의 일환으로 'HiT 보건역량기반 창업캠프'를 개최했다.

이번 창업캠프는 창업에 대한 열정을 가진 대전보건대학교의 안경광학과와 스포츠건강관리과 학생 33명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되었으며, 예비 졸업생인 3학년 학생은 물론 1, 2학년 재학생까지 다양한 학생들이 함께 참여하여 창업에 대한 꿈을 펼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창업캠프는 학생들이 창업에 대한 실질적인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었다. 초청강사와 함께 학과 특성에 맞는 창업아이템 선정을 시작으로 창업아이디어 고도화를 통한 비즈니스모델 개발, 사업계획서 작성의 일정과 선배창업자와 창업전문가의 최신 창업 트렌드, 창업 노하우 등의 특강 운영을 끝으로 1일차 일정이 마무리된 후, 2일차에는 학생들이 자신이 작성한 사업계획서를 발표하고, 심사와 피드백을 받는 시간이 마련되었다. 각 팀은 자신의 창업 아이템과 사업계획서를 발표하면서, 다른 팀과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경쟁을 통해 더 나은 아이템을 구상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발표 후, 심사위원들은 학생들의 사업계획서를 평가하고, 창업 아이템의 실현 가능성, 시장성, 경쟁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드백을 제공했다. 심사위원들은 학생들이 제시한 아이템에 대한 개선점을 제시하고, 창업 아이템을 더욱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안했다. 또한, 각 팀은 피드백을 바탕으로 창업 아이템을 보완하고, 향후 창업 활동을 이어갈 수 있는 구체적인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었다.

대전보건대학교는 이번 창업캠프 외에도 다양한 취업 및 창업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의 직무 능력 향상과 취업 역량 강화를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 특히, 창업에 대한 관심이 높은 학생들에게는 창업 아이템을 구체화하고, 실제 창업 활동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창업캠프에서 학생들은 창업에 대한 꿈을 실현할 수 있는 소중한 경험을 쌓았으며, 향후 이들이 창업 분야에서 활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었다.

창업은 단순한 아이디어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계획과 실행을 통해 현실이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창업에 대한 열정이 있는 학생들이 이번 캠프와 같은 프로그램을 통해 성공적인 창업 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대전보건대학교는 지속적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4분기 기타혁신 핫 이슈

Hot Issue

NEWSLETTER

디지털 격차 해소의 중요한 한 걸음

AI 플랫폼을 활용한 실습 중심 학습 디지털 튜터 양성과정

일자 | 2024. 12. 10.(화)
장소 | 탐구관 컴퓨터정보학과 실습실

"누구나 쉽게 배우는 디지털 플랫폼 이용 교육"

대전보건대학교는 12월 10일 성인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디지털 튜터 양성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이번 프로그램은 디지털 사회에서 성인학습자들이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고, 디지털 생활을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진행되었으며, AI 플랫폼을 활용한 실용적인 디지털 교육을 제공했다.


Chat GPT


PPT


WRTN


TOONING

디지털 튜터 양성과정은 ChatGPT, PPT, 뤼튼, 투닝 등 다양한 AI 기반 플랫폼을 활용하여 참가자들에게 실습과 이론을 결합한 교육을 제공했다. 참가자들은 디지털 콘텐츠를 직접 제작하고 수정하는 경험을 통해 몰입도 높은 학습을 했다. 총 20명이 참여한 이번 프로그램에서는 참가자들이 디지털 튜터 자격증을 취득하며, 향후 보육 현장이나 교육 분야에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교육을 실천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프로그램에 참여한 많은 참가자들이 어린이집 교사였고, 이 교육 내용이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실용적인 도움이 되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교사들은 배운 AI 플랫폼을 활용해 보육 현장에서 디지털 도구를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어린이들에게 디지털 교육을 자연스럽게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디지털 튜터로서 최신 기술을 활용한 교육 콘텐츠 개발에도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

대전보건대학교는 이번 프로그램 이후에도 성인학습자들을 위한 디지털 교육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디지털 기술을 쉽게 배우고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성인학습자들이 디지털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디지털 기술은 이제 모든 산업에서 필수적인 요소로 자리 잡았고, 대전보건대학교는 디지털 격차 해소와 디지털 교육의 중요성을 실감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계속해서 운영할 예정이다.

4분기 기타혁신 핫 이슈

Hot Issue

NEWSLETTER

지역과 함께하는 건강한 미래

지역사회 연계 장애인 토탈헬스케어 MEDi-HiT 프로그램 운영

일자 | 2024. 12. 24.(화)
장소 | 한밭장애인 자립생활센터



"건강박스로 이어지는 따뜻한 나눔"

대전보건대학교 의료시뮬레이션센터는 지난 12월 24일 지역사회 연계 장애인 토탈헬스케어 프로그램인 MEDi-HiT를 통해 대전 지역 장애인들의 건강 증진에 기여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한밭장애인자립생활센터와 동구 및 중구 지역 주민들에게 건강 콘텐츠와 건강박스를 제공하는 형태로 진행되었으며, 특히 비대면 방식으로 이루어져 코로나19 이후에도 안전하게 건강 관리 지원이 가능했다.





MEDi-HiT 프로그램은 대전보건대학교 학생들이 제작한 비대면 건강 콘텐츠를 활용하여 지역 장애인들에게 실질적인 건강 관리 방법을 전달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학생들은 건강박스를 제작하여, 핸드워시, 마스크, 손지압 볼, 운동밴드 등 다양한 건강 관리 도구를 포함시켰다.

이러한 건강박스는 참가자들이 일상 생활 속에서 손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코로나19 이후 비대면으로 건강 관리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번 프로그램에 포함된 건강 콘텐츠는 낙상 예방, 호흡 재활 운동, 당뇨 예방 방법 등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건강 관리 및 예방법을 다룬다. 특히 낙상 예방 콘텐츠는 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운동 방법과 주의사항을 포함하여,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신체적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돕는다.

호흡 재활 운동은 호흡기 질환을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며, 당뇨 예방 콘텐츠는 혈당 관리와 올바른 식습관을 실천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이러한 콘텐츠는 장애인들이 직면할 수 있는 다양한 건강 문제에 대한 예방적 접근을 제공하며, 실생활에서 쉽게 적용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한다.

한밭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학생들이 만든 건강 콘텐츠와 건강박스를 매우 유용하게 활용하겠다고 고마움을 전하며 앞으로도 대전보건대학교와의 협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MEDi-HiT 프로그램을 통해 대전보건대학교는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장애인들의 건강을 위한 다양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이론을 넘어 실제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역량을 키우고, 지역 장애인들은 보다 나은 삶을 위한 건강 관리 방법을 배우게 될 것이다.

Hot Issue

4분기 대학 공공성 및 사회적 가치실현 핫 이슈

NEWSLETTER

학생과 소통하는 대전보건대, 열린 토론회로 의견 수렴

총장님과 함께하는 열린토론회 개최

일자 | 2024. 11. 1.(금)
장소 | 박애관 연회장(나눔홀)

"소통과 공감의 캠퍼스 문화 조성 위한 지속적 노력"





대전보건대학교 이정화 총장이 학생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직접 목소리를 듣는 자리를 마련했다. 대학은 11월 1일 혁신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총장님과 함께하는 열린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학생들이 학교에 대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의견을 공유하고, 총장과 직접 소통하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에는 이정화 총장과 함께 부서장, 총학생회 임원, 학과 대표 등 6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교육 및 학사 운영, 학생 복지 및 지원, 캠퍼스 인프라와 환경, 학생 참여와 소통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학생들은 자유롭게 학교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며, 궁금했던 사항들에 대해서도 직접 답변을 들을 수 있었다.

김사랑 총학생회 부회장은 이날 "총장과 학생 간의 정기적인 간담회를 통해 학교에 대한 다양한 주제를 다루고, 더 많은 학생이 학교 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이정화 총장은 "이번 행사가 단발성으로 끝나지 않도록, 학생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할 계획이다"라며 "학생들의 다양한 아이디어와 의견을 경청해 소통과 공감의 캠퍼스 문화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토론회는 학생들이 학교에 대한 의견을 직접 제시하고, 학교 운영에 참여할 기회를 확대하는 중요한 첫걸음으로 평가된다. 이와 같은 소통의 기회들은 대전보건대가 학생들과 지속적으로 대화하며 더욱 발전하는 대학으로 자리매김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다.



Hot Issue

4분기 대학 공공성 및 사회적 가치실현 핫 이슈

NEWSLETTER

병원 현장 체험을 통한 융합적 학습

대학연합 다학제 간 연계 교육(IPE) '건양리더스캠프' 참가

기간 | 2024. 12. 15.(일) ~ 2024. 12. 20.(금)
장소 | 건양대학교

"다양한 전공 체험과 협력 역량 강화"

점점 더 복잡해지는 의료 시스템 속에서 환자 진료의 질 향상과 건강 결과 개선을 위한 융합형 인재 양성이 필요한 시대가 도래했다. 이에 따라 대전보건대학교를 비롯한 지역 대학들이 협력하여 보건 분야 융합 인재 양성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다. 그 중 하나가 건양대학교, 대전보건대학교, 대전과학기술대학교가 공동으로 참여한 '건양리더스캠프'다.

건양리더스캠프는 학생들이 실제 병원 현장에서 병동, 검사실, 각종 병원 부서를 돌아보며, 자신이 속한 전공 이외의 분야를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이 캠프에서는 전공 간 융합적인 학습을 제공하며, 시나리오 기반의 환자 경험을 통해 학생들이 환자 안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도 경험한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의료 분야의 각기 다른 직무와 역할을 이해하고, 실질적인 협업의 중요성을 배우게 된다. 또한, 캠프에 참여하는 학생들은 각기 다른 전공의 전문가들과 상호작용하며, 의사소통 능력과 협력 능력을 기를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는다.

미래의 의료 환경은 다학제 팀 기반의 의료 서비스가 중심이 될 것으로 전망되며, 이는 환자에게 수준 높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통합 의료의 보편적 시행을 의미한다. 이러한 변화에 발맞추어, 대전보건대학교는 보건융합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적 기반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학생들이 병원 현장에서 실제 상황을 체험하고,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과 협력하며 능력을 쌓을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지역 보건 의료 시스템의 발전을 이끌어나갈 융합형 인재들을 양성해 나갈 예정이다.

대전보건대학교는 이와 같은 교육적 기회를 통해, 의료 환경에서의 변화와 발전에 적극 대응하는 인재들을 배출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다양한 캠프와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의 역량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는 학생들이 미래 의료 서비스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전문가로 성장하는 데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이다.







Hot Issue

4분기 대학 공공성 및 사회적 가치실현 핫 이슈

NEWSLETTER

대전보건대학교,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건강증진 노력

비만탈출 건강 지킴이, 제1회 총장배 5:5 풋살대회 개최

일자 | 2024. 11. 20.(수)
장소 | 대전보건대학교 운동장

"총장배 풋살대회, 비만 문제 해결의 한판 승부"



대전보건대학교는 20일 대학 운동장에서 '비만탈출 건강지킴 프로그램, 총장 배 5:5 풋살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비만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노력의 일환으로, 지역 주민과 교내 구성원이 함께 참여해 건강 증진과 교류를 도모하는 장으로 마련되었다.

'비만탈출 프로그램'은 비만 문제 해결책을 모색하는 취지에서 시작되었으며, 올해는 풋살대회 형태로 진행됐다. 교내외 참여자들은 신체 활동을 통해 건강을 증진하고, 친목을 다지며 정신적·사회적 건강을 함께 도모하는 시간을 가졌다.

대회에는 교내 10개 팀(68명)과 교외 8개 팀(53명)으로 구성된 총 18개 팀, 121명이 참가해 토너먼트 방식으로 경기를 펼쳤다. 치열한 경쟁 끝에 목원대학교 스포츠건강관리과의 '바로FS' 팀이 우승을 차지했으며, 대전대학교 스포츠건강관리과의 '히어로' 팀이 준우승을 차지했다. 두 팀에게는 트로피와 다양한 상품이 수여되며, 참여자들에게 큰 격려와 동기부여를 제공했다.

이정화 총장은 "재학생과 지역 주민의 많은 참여로 대회를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체육 활동과 건강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 주민과 학생들이 함께 건강을 증진할 수 있도록 다양한 행사를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대전보건대학교는 보건의료 지원 행사와 교육을 통해 지역 발전에 기여하며, 글로컬 30에 선정된 대학으로 더욱 성장하겠다"고 전했다.

대전보건대학교는 이와 같은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사회와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며, 지역 건강 증진을 선도하는 대학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할 계획이다.

Hot Issue

4분기
대학 공공성 및 사회적 가치실현 핫 이슈

NEWSLETTER

제24회 평일통일배 전국소프트볼대회
스포츠클럽 소프트볼 전국대회 'HiT 치다', 첫 대회에서 준우승 달성

일자 | 2024. 7. 11. (목) ~ 2024. 7. 15.(월)
장소 | 인제야구장





"여자 소프트볼 신흥 강자 등장! 대전보건대의 뜨거운 도전"

대전보건대학교 소프트볼 스포츠클럽 'HiT 치다'가 제24회 평화통일배 전국소프트볼대회에서 준우승을 차지하며 주목을 받았다. 이번 대회에서 임소현 감독과 박유진, 조승리 선수가 대전 대표로 선발되어 뛰어난 실력을 선보였고, 그 결과 준우승을 달성했다.

'HiT 치다'는 대전보건대학교가 비인기 종목 활성화와 지역 스포츠 발전을 위해 창단한 클럽으로, 소프트볼이 중학교, 고등학교를 넘어 대학까지 이어지는 체계를 구축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

클럽은 2025년 소프트볼팀 창단을 위한 준비를 진행 중이다. 임소현 감독은 소프트볼을 통해 대전지역 학생들의 다양한 진로와 스포츠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는 'HiT 치다'의 첫 공식 대회였으며, 대전보건대 소속 선수들이 준우승을 차지한 것은 팀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성과로 평가받았다. 대전보건대는 이번 성과를 바탕으로 소프트볼팀 창단을 위한 지원을 계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2025년부터 스포츠건강관리과를 운영하여 스포츠와 건강 관리 분야의 전문가를 양성할 계획이다.

대전보건대는 앞으로도 소프트볼을 포함한 다양한 스포츠 종목에서 두각을 나타낼 것으로 기대된다. 소프트볼팀 창단과 함께 지역 스포츠 발전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다할 예정이다. 'HiT 치다'의 준우승은 대전지역 스포츠 문화의 발전을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 되었다.

2024 혁신지원단
모니터링단 활동 소감

Review

NEWSLETTER

"혁신지원사업, 모니터링단 활동을 통한 새로운 발견 "



물리치료학과
조 득 현

★ ★ ★ ★ ★

대학혁신지원사업단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대해 이전에는 크게 관심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번 모니터링단 활동을 통해 이러한 사업들이 학교와 학생들에게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직접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산업체 재직자들이 진행하는 특강이 혁신지원사업의 일환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사업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학생들이 이러한 프로그램에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팀원들과 함께 포스터와 리플릿을 제작하여 사업의 존재를 널리 알리는 방법을 고민했습니다. 학생들이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다양한 혜택을 누리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번 활동을 통해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큰 보람을 느꼈으며, 함께 활동한 팀원들과의 협력에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모니터링단 활동을 통해 학생들이 대학 혁신 지원사업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려는 자세를 보여준 점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의 성장과 발전을 지원하겠습니다.



치위생학과
이 상 은

★ ★ ★ ★ ★

"혁신지원사업을 통한 의미 있는 학교생활과 프로그램 참여 경험"

학교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혁신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학업에 집중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런 특별한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의미 있는 학교생활을 보낸 경험은 나중에 되돌아봤을 때 좋은 추억이 될 것 같아요. 특히 제가 만든 포스터가 실제로 재학생들이 참여하는 프로그램 운영에 도움이 되었다는 생각에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제안드리고 싶은 점은, 외부 프로그램들은 1학기나 2학기 초에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학교 내에서 할 수 있는 특강이나 멘토링 프로그램도 좋지만, 봉사활동이나 플로깅 같은 외부 프로그램은 2학기 중간고사 후, 학생들이 국가고시 준비나 취업 준비로 바쁠 때 참여하기 부담스럽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들은 학기 초에 진행되면 더 많은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모니터링단 활동을 하게 되어 정말 영광이었고, 학교 생활 중 가장 재미있는 경험 중 하나였습니다. 좋은 기회를 주신 사업단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이런 프로그램들이 더 많이 제공되기를 기대합니다!

학생분께서 제안하신 외부 프로그램의 시기 조정에 관한 의견 충분히 공감합니다.
모니터링단 활동을 통해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을 나누어 주셔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학생들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더 나은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24 혁신지원단 모니터링단 활동 소감

Review

NEWSLETTER

"혁신지원사업, 함께 알아가며 성장한 경험 "



컴퓨터정보학과
김 민 경

★ ★ ★ ★ ★

모니터링단 활동을 통해 대학혁신지원사업에 대해 많은 것을 알게 되는 좋은 경험을 했습니다. 그동안 참여하지 않았더라면 몰랐을 다양한 사업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고, 이러한 프로그램들이 학생들에게 제공된다는 점이 매우 유익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팀원들과 함께 어떻게 하면 학생들에게 이 사업들을 효과적으로 알릴 수 있을지 고민하며 다양한 아이디어를 나누는 과정에서 많은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활동을 하면서 알게 된 것은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존재하지만, 재학생들의 참여율이 예상보다 낮다는 점이었습니다. 이는 사업단에서 참여를 유도하는 방안을 계속 고민해야 하는 이유일 것입니다. 또한, 지금까지는 사업이 촉박하게 진행되었던 것 같아, 내년부터는 사업이 여유롭게 운영되어 학생들이 원활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계획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모니터링단 활동을 통해 학교와 학생들에게 모두 도움이 될 수 있었기를 바랍니다.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모니터링단 활동을 통해 학생들이 대학혁신지원사업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고, 이를 홍보하려는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주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학생들의 아이디어와 고민을 바탕으로 프로그램을 개선하고, 앞으로 더욱 많은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혁신지원사업 모니터링단 활동을 통해 배운 것들"



바이오의약과
이 윤 수

★ ★ ★ ★ ★

혁신지원사업의 수혜자로서 활동에 참여하게 되어 큰 영광이었습니다.
평소 학교에서 운영되는 다양한 프로그램에 관심이 많았고, 이를 통해 많은 경험을 쌓았습니다. 이번 모니터링단 활동을 통해 팀원들과 함께 프로그램 운영 방식에 대해 논의하고, 개선점을 찾는 과정에서 제 생각을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인터뷰를 통해 학교의 입장을 이해하고, 사업이 얼마나 다양하게 운영되는지, 학생들에게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학교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은 단순히 참여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평소 알지 못했던 다양한 이야기들을 듣고, 새로운 관점에서 학교의 사업을 바라보게 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유익한 사업들이 재학생들에게 제공되어, 학생들의 성장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활동을 통해 많은 것을 배우고 성장할 수 있었기에, 다음에도 기회가 주어진다면 꼭 참여하고 싶습니다.

혁신지원사업 모니터링단 활동을 통해 학생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프로그램 운영의 개선점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학생들이 프로그램을 통해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며, 앞으로도 학생들의 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더욱 발전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24 혁신지원단 모니터링단 활동 소감

Review

NEWSLETTER

"HiT 학생모니터링단 활동을 통해 학교 프로그램의 가치를 재발견하다 "



간호학과
박 선 주

★ ★ ★ ★ ★

작년에 이어 올해도 혁신지원사업 HiT 학생모니터링단에 참여하며 다양한 활동을 경험하게 되어 매우 뜻깊었습니다. 활동을 통해 학교가 제공하는 교육과 취업 관련 프로그램들이 재학생들에게 얼마나 중요한 기회를 제공하는지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담당자 인터뷰를 통해 공모전, 진로설계, 멘토링 등 취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프로그램들을 알게 되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학교생활 중 놓치기 쉬운 정보들을 접할 수 있었고, 이를 통해 졸업 후 취업에 대한 준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한, 저희 팀이 만든 홍보물들이 학교의 프로그램을 원활하게 운영하는 데 기여하고, 다른 학생들이 필요한 정보를 놓치지 않도록 돕는 데 일조한 것에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이 활동을 통해 학교와 학생 간의 소통이 더욱 강화되고, 재학생들이 보다 나은 학습 환경과 취업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돕는 기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이번 활동은 제 역량을 더욱 키울 수 있었던 소중한 경험이었습니다. 다양한 프로그램을 이해하고,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성장할 수 있었고, 이러한 경험들이 앞으로 제 진로와 학업에 큰 자산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이 기회를 통해 얻은 인사이트와 지식은 제 미래에 큰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혁신지원사업 HiT 학생모니터링단 활동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프로그램에 대한 깊은 이해와 열정을 바탕으로 학생들에게 중요한 정보를 전달하고, 학교와 학생 간 소통을 강화하는 데 기여한 점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경험이 학생의 진로와 학업에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활동모음





우리학교 이모저모

2024년 HIT ISSUE 모음집



2024년, 대전보건대학교 제17대 총장 취임

"글로벌 보건 인재 양성 목표로 한 새로운 출발"

일자 | 2024. 8. 1.(목)
장소 | 대전보건대학교 대강당 (청양홀)

2024년 8월 1일, 대전보건대학교는 제17대 신임 총장 이정화 박사의 취임식을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대전광역시장 이장우, 학교법인 청운학원 이사장 변윤석, 대구보건대학교 총장 겸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장 남성희, 대전광역시 동구청장 박희조, 대전광역시 중구청장 김제선, 한밭대학교 명예총장 염홍철을 비롯한 다수의 축하 인사들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냈다. 또한, 국제 교류 대학에서 축하 영상을 보내왔으며, 앙상블 연의 축하 공연이 행사 분위기를 한층 고조시켰다.







총장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신임 총장 이정화 박사는 미국 존스홉킨스대학교 피바디 음악대학에서 학사 및 석사 학위를, 미국 미시간 주립대학교에서 박사 학위를 취득한 후 교육과 연구 분야에서 활발히 활동해왔다.

이정화 총장은 취임사를 통해 "대전보건대가 글로벌 보건 인재 양성의 요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학생중심의 교육과 혁신적인 연구를 통해 지역사회와 국가발전에 기여할 것임을 약속했다. 또한 "대학 구성원과의 소통과 협력을 강화해 모두가 함께 성장하는 매력적인 대학을 만들겠다"고 강조하며, 대전보건대의 비전과 목표를 제시했다. 더불어 대학의 발전을 위한 전략으로, 학생들의 창의력과 문제 해결 능력을 배양하고, 학문적 성취뿐만 아니라 사회적 책임감을 갖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축사를 전한 대전광역시장 이장우는 "대전보건대학교가 지역 사회와 국가의 발전을 이끄는 중요한 교육기관으로 자리잡기를 기대한다"며, 신임 총장의 리더십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다. 또한, 학교법인 청운학원 이사장 변윤석은 "이정화 총장이 보여줄 비전과 열정이 대전보건대의 발전을 이끌 것"이라며, 학교의 성장 가능성에 대한 확신을 밝혔다.

이정화 총장은 취임 후, 대전보건대학교가 지역 사회와 글로벌 보건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하며, 대학의 혁신과 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실천에 옮길 것을 다짐했다.

이번 취임식을 통해 대전보건대학교는 새로운 비전과 함께 다시 한번 도약할 준비를 마쳤다.

2024년, 상반기, 하반기 교수 정년퇴임식

"정년퇴임 교수님들의 업적과 헌신을 기리며"

일자 | 2024. 2. 16.(금) / 2024. 8. 16.(금)
장소 | 대전보건대학교 대강당 (청양홀)







대전보건대학교는 2024년 상반기 및 하반기 정년퇴임식을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정년퇴임을 맞은 교수님들, 동료 교수진, 교직원, 그리고 학생들이 참석하여 퇴임 교수님들의 그동안의 노고와 업적을 기리고, 새로운 출발을 응원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다.

정년퇴임식은 상반기와 하반기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되었으며, 각 퇴임 교수님의 약력 소개로 시작됐다. 교수님들은 오랜 시간 동안 대전보건대학교의 학문적 발전과 학생들의 성장을 위해 헌신해 온 바 있으며, 그들의 업적을 되새기는 시간이 되었다. 교직원들은 한 사람 한 사람의 퇴임 교수님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담아 약력을 소개하며, 교수님들의 학문적 기여와 대학에 대한 애정을 되새겼다.

정년퇴임을 맞은 교수님들에게는 공로패와 감사패가 증정되었으며, 이를 통해 그들의 학문적 기여와 교육적 열정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공로패는 그동안 대전보건대학교에서 펼친 교육과 연구 활동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담아 전달되었으며, 감사패는 대학 발전에 기여한 교수님들의 헌신을 기리기 위해 준비됐다. 이와 함께 각 교수님들에게는 꽃다발도 전달되어, 그들의 은퇴를 축하하고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따뜻한 순간이 이어졌다.

퇴임식에서 교수님들은 석별 인사를 통해 그동안의 학문적 여정과 대전보건대학교에서의 소중한 추억을 나누었다. 많은 교수님들이 학생들에게 전한 마지막 메시지는 학문적 성취만큼 중요한 인성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내용이었다. 또한, 교수님들은 후배 교수진과 학생들에게 따뜻한 응원의 메시지를 남기며, 후임 교수님들이 대학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길 바라는 마음을 표현했다.

정년퇴임식은 교수님들의 학문적 성과를 축하하는 자리인 동시에, 대전보건대학교의 발전에 기여한 교수님들의 열정과 헌신을 돌아보는 기회였다. 특히 이날 행사에는 많은 학생들이 참석하여, 그동안의 교수님의 가르침과 배움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도 했다. 많은 교수님들은 학생들에게 "학생들이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노력할 수 있도록 도와준 것에 큰 보람을 느꼈다"며, "앞으로도 학생들의 꿈을 응원할 것이다"는 따뜻한 인사를 남기기도 했다.

대전보건대학교는 이번 퇴임식을 통해 교직원들의 헌신과 노고를 되새기며, 교육과 연구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의지를 다졌다. 대전보건대학교는 앞으로도 퇴임한 교수님들의 업적을 기억하고, 후배 교수님들과 학생들이 그들의 발자취를 따라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2024년, 벚꽃길 마라톤대회 봉사활동

NEWSLETTER

"마라톤 대회에서 펼쳐진 대전보건대학교의 따뜻한 나눔"

일자 | 2024. 4. 13.(토)
장소 | 오동선 대청호 벚꽃길

2024년 4월 13일, 대전광역시 동구 신상동에서 열린 '2024 대청호 벚꽃 길 마라톤 대회'가 성황리에 진행되었다. 대전광역시 동구 주최, 대전보건대학교 총동문회 후원으로 개최된 이번 대회는 대청호반의 아름다운 경관과 국내 최장의 벚꽃 길을 따라 달리며 봄의 정취를 만끽할 수 있는 특별한 행사였다.

대전보건대학교는 약 10개 학과의 학생 32명과 교직원 14명이 참가하여 급수대 및 테이핑 봉사활동을 지원하며 대회의 원활한 진행을 도왔다. 이들은 마라톤 참가자들에게 물을 제공하고 부상 방지를 위한 테이핑 작업을 통해 대회가 성공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기여했다.

특히 학생들은 마라톤에 참여하며 지역 사회와의 유대감을 쌓을 수 있는 중요한 기회를 가졌다. 9명의 학생들이 미니코스와 건강코스에 참가해 지역 주민들과 함께 달리며 교류의 시간을 가졌다.
이 코스들은 마라톤 초보자와 지역 주민들이 손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마련되어, 참가자들이 벚꽃길을 즐기며 마라톤의 기쁨을 나누는 경험을 제공했다.





이번 대회는 단순한 스포츠 행사 이상의 의미를 지녔다. 대전보건대학교는 지역 사회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학생들에게 지역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사회적 책임을 다했다. 이정화 대전보건대학교 총장은 "우리 대학은 학생들이 지역 사회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것이다"며, "이번 대회는 지역 사회와의 협력의 중요한 순간이었다"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도 학생들이 글로벌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2024 대청호 벚꽃 길 마라톤 대회'는 대전보건대학교 학생들의 참여와 교직원들의 봉사로 더욱 의미 있는 행사로 기억될 것이다. 대학은 앞으로도 지역 사회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경험을 제공하는 다양한 사회 봉사와 지역 행사에 참여할 예정이다.

2024년, 청운 축제 행사 개최

"대학의 낭만과 멋을 알리기 위한 특별한 축제의 장"

일자 | 2024. 5. 16.(목) ~ 2024. 5. 17.(금)
장소 | 대전보건대학교 운동장 등







대전보건대학교는 학생들에게 학교의 낭만과 멋을 알리고 소속감을 제고하기 위한 특별한 축제를 개최했다. 이번 축제는 단순한 학내 행사에 그치지 않고, 인근 대학생들과 지역 주민들이 함께 어우러지는 장으로 마련되었으며, 대학의 위상 제고와 홍보를 위한 중요한 기회가 되었다. 특히, 대전지역 대학 동아리들이 참여한 연합 공연이 큰 주목을 받았다. 대전보건대학교 학생들과 인근 대학의 동아리들이 모여 다양한 공연을 펼쳤고, 이 공연은 학생들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에게도 큰 인기를 끌었다. 대학 동아리들의 합동 공연은 대학 간 벽을 허물고, 다양한 문화와 예술을 공유하는 특별한 장이 되었다. 이러한 공연은 지역 사회와 대학 간의 유대를 강화하는 중요한 역할을 했다.

축제는 온·오프라인 행사로 기획되어 최신 트렌드에 민감한 학생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디지털 환경에 익숙한 세대에게도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식을 제공했다. 온라인 생중계, SNS 이벤트,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한 참여 등 다양한 디지털 요소가 도입되어 축제는 더욱 현대적이고 혁신적인 형태로 진행되었다. 이를 통해 대학은 학생들이 쉽게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며, 대학의 이미지를 트렌디하고 혁신적인 것으로 강화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이정화 총장은 "이번 축제는 대전보건대학교의 문화적 정체성을 확립하고, 학생들에게 대학의 낭만과 멋을 알리기 위한 중요한 행사였다. 또한 지역 사회와의 협력과 소통을 통해 대학의 위상을 제고할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앞으로도 대학의 문화적 풍요와 소속감을 강화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대전보건대학교의 이번 축제는 대학 홍보를 넘어, 학생들에게 소속감을, 지역 사회에는 대학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준 중요한 행사로 기억될 것이다.
앞으로도 대전보건대학교는 지역 사회와 함께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의 역량을 키우고, 지역 주민들과의 연대감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2024년, 청운 체육대회 행사 개최

"코로나19를 넘어 새롭게 맞이한 청운 체육대회"



일자 | 2024. 9. 26.(목) ~ 2024. 9. 27.(금)
장소 | 대전보건대학교 운동장 등

2024년 9월 26일, 27일 대전보건대학교는 아우름 총학생회 주관, 대전보건대학교 주최로 이틀간 체육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이번 대회는 학과 간 화합과 경쟁을 통해 학생들이 협력하고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신체 활동뿐만 아니라 팀워크와 단결력을 기르는 중요한 행사였다.

대회는 6개 조로 나뉘어 진행되었으며, 각 조는 다양한 학과의 학생들로 구성됐다. 참가자들은 줄다리기, 축구, 발야구, 농구, 족구, 카드 뒤집기, 꼬리잡기, 혼성 계조, 짝피구, 8자 줄넘기 등 총 10개 종목에서 경쟁했다.

인기 종목인 축구와 농구에서는 전략과 팀워크가 중요한 역할을 했고, 카드 뒤집기와 꼬리잡기 등의 종목은 웃음과 즐거움을 선사하며 대회 분위기를 더욱 뜨겁게 만들었다.

각 종목의 점수를 합산해 최종 순위가 결정됐으며, 1위 팀은 상금 100만 원, 2위는 50만 원, 3위는 30만 원을 받았다. 또한, 각 종목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팀과 개인에게는 시상식에서 경의를 표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대전보건대학교 체육대회는 경쟁을 넘어서, 학생들이 협력하고 소통하는 장으로 자리 잡았다. 학생들은 서로 다른 학과와 협력하며 새로운 인연을 만들었고, 팀을 응원하는 따뜻한 지원 속에서 대학 생활의 소중한 추억을 쌓았다. 또한, 이번 대회를 통해 대전보건대학교는 학생들에게 건강한 경쟁과 협력의 가치를 실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대학 내 화합과 소속감을 높이는 데 기여했다.

이번 체육대회는 학생들의 전인적 성장을 지원하고, 다양한 활동을 통해 글로벌 사회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데 중점을 두고 진행됐다. 대전보건대학교는 앞으로도 학생들에게 더 많은 활동의 기회를 제공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역량을 강화할 예정이다.





2024년, 대전 동구 행복한어르신복지관 의료봉사

NEWSLETTER

"틀니 세척부터 수리까지, 어르신 건강 지키기"

일자 | 2024. 10. 11.(금)
장소 | 대전 동구 행복한어르신 복지관





대전 동구 행복한어르신복지관 대강당에서 틀니를 사용하는 어르신들을 위한 의료봉사와 인식개선 활동이 진행되었다.

이번 행사는 기술기반 지역사회 문제해결을 목표로 한 리빙랩 사업의 일환으로, 어르신들에게 틀니 관리와 사용법을 교육하고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자리였다.



행사를 주관한 대전보건대학교 치기공학과 임중재 교수와 학생 11명은 틀니 세척과 사용법 교육을 맡아 어르신들의 편의를 도왔다. 학생들은 틀니의 올바른 관리와 사용법을 알기 쉽게 설명하며,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했다.

또한, 대전치과의사회 연세치과의원 조수영 원장은 틀니 사용자들의 상태를 진료하고 검진했으며, 대전치과기공사회 서진무 회장과 에이플러스치과기공소 김선용 대표는 깨지거나 헐거운 틀니를 수리했다.

더불어 틀니에 부착된 치태 제거, 통증 부위 조정, 초음파 세척기와 틀니 세정제를 이용한 세척 등 정밀한 관리가 이루어졌으며, 틀니 사용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예방하고 구강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올바른 방법에 대한 교육도 마련되었다. 한 어르신은 "사용법을 몰라 어려움이 많았는데 이번 교육이 큰 도움이 되었다"고 말했다.

행사 후에는 보건용 마스크, 치약, 틀니 세정제가 제공되었으며, 설문조사 결과 어르신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게 나타났다. 이번 활동은 틀니 사용자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구강 건강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

치기공학과 임중재 교수는 "리빙랩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고, 틀니 사용자들의 의견을 반영한 실질적인 도움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틀니 사용자들의 불편함을 해소하며 지역사회의 요구를 반영한 의료봉사의 모범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전문적 진료와 세심한 관리로 만족도 높은 봉사활동이었습니다!

2024년, 대전보건대, '글로컬대학30' 출범식

NEWSLETTER

"'글로컬대학30' 사업과 대전보건대학교의 역할"

일자 | 2024. 11. 1.(금)
장소 | 박애관 연회장 (나눔홀)



대전보건대학교 11월 1일 본교 나눔홀에서 대학의 안·밖 국내·외의 벽을 허물고, 지자체와 산업체 간 견고한 파트너십을 통해 지역과 대학이 동반 성장하는 '글로컬대학30' 출범식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서는 대전보건대학교가 '글로컬대학30' 사업에 선정된 것을 기념하며, 지역과 대학이 상생할 수 있는 비전과 계획을 공유하는 중요한 자리로 마련됐다.

대전보건대학교는 대구보건대, 광주보건대와 함께 초광역 연합 모델을 제시하며 치열한 경쟁을 뚫고 대전에서 유일하게 '글로컬대학30'에 최종 선정되었다. 이번 선정은 대전보건대학교가 지역 발전과 대학의 성장을 동시에 이루어낼 수 있는 가능성을 인정받았다는 의미로, 대학의 발전 가능성을 한층 더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

출범식에는 이정화 총장을 비롯해 이장우 대전시장, 박희조 동구청장, 대전시의회 관계자, 지역 산업체 및 유관 기관들이 대거 참석하였다. 이들 참석자는 대전보건대학교의 '글로컬대학30' 선정과 이를 통한 지역 발전의 가능성에 대해 큰 기대감을 나타냈다. 이정화 총장은 글로컬대학30 선정에 아낌없는 지원과 응원을 보내준 이장우 대전시장을 비롯한 대전시 관계자들과 박희조 동구청장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전문화된 보건교육 시스템을 구축하여 대학과 지역이 함께 상생할 수 있는 선도적인 역할을 하겠다"는 다짐을 밝혔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대전시 전략산업과 글로컬대학30 사업이 전략적 공유 및 협력을 통해 지역에 정주할 수 있는 맞춤형 인재 양성의 뜻"을 전하며, 지역의 산업과 교육이 긴밀히 연결되어 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협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박희조 동구청장 역시 "지역과 대학이 상생 발전할 수 있는 좋은 발판이 마련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이 사업이 지역 사회와 대학의 발전을 동시에 이루어낼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대전보건대학교는 이번 글로컬대학30 사업을 통해 지역, 산업체, 대학, 연구기관, 병원을 아우르는 지산학연관병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을 계획하고 있다.

이번 출범식을 통해 대전보건대학교는 지역과 대학의 상생을 위한 새로운 전환점을 마련했다. '글로컬대학30' 사업을 통해 대학은 지역 사회와의 긴밀한 협력 관계를 형성하고, 지역은 대학과 함께 성장하며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어낼 것이다. 대전보건대학교는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 발전하며, 지역 맞춤형 인재 양성을 통해 지역 경제와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24년, 주얼리디자인과 충청남도 산업디자인대전 수상 성과

NEWSLETT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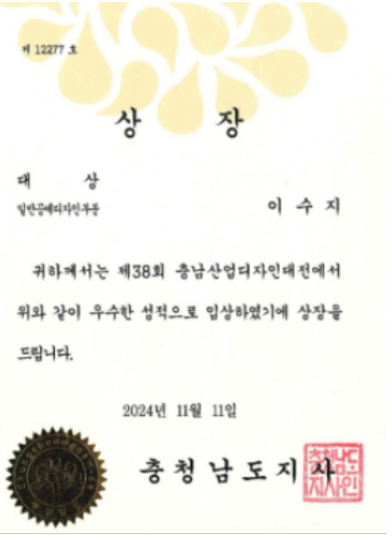
"주얼리디자인과, 산업디자인대전에서 우수한 성과 빛내다"

일자 | 2024. 11. 11.(월)
장소 | 충청남도 산업디자인협회 논산문화원

대전보건대학교 주얼리디자인과 학생들이 11월 11일 열린 충청남도 산업디자인대전 공모전에서 대상, 특별상, 특선, 입선 등 우수한 성과를 거뒀다. 이번 공모전은 충청남도 산업디자인협회 주관으로 진행되었으며, 산업디자인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디자인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최되었다. 공모전은 시각디자인, 산업공예디자인 등 다양한 부문으로 나뉘어 진행되었으며, 학생들에게 창의적이고 실험적인 작품 제작의 기회를 제공했다.

학생들은 공모전 준비 과정에서 자신만의 아이템과 주제를 선정해 작품 제작을 진행하고, 교수들은 주제의 적합성과 제작 과정에서 자문을 제공하며 작품 완성도를 높이는 데 도움을 주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실무 능력을 배양하며 전공 역량을 강화할 수 있었다.





주얼리디자인과 나윤섭 교수의 지도를 받은 이수지 학생은 'Roopretelcha'라는 작품을 출품해 주목을 받았다. 모든 일이 이루어지길 바라는 소망을 주제로 한 이 작품은 독창적이고 실험적인 디자인으로 심사위원들에게 높은 평가를 받았다. 작품은 주제와 제작 기술에서 높은 완성도를 보여 공모전에서 두각을 나타냈다.

대전보건대학교 주얼리디자인과는 이번 공모전에서 거둔 성과를 바탕으로 학생들의 실무 능력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교수와 학생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창의적이고 독창적인 디자인 교육을 실현하며, 공모전을 활용해 학생들이 산업 현장에서 요구되는 기술과 역량을 쌓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번 성과는 학생들의 노력과 체계적인 지도 프로그램이 결합된 결과로, 주얼리디자인과가 창의적 인재를 양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앞으로도 대전보건대학교 주얼리디자인과는 디자인 분야에서 빛나는 성과를 이어가며 산업디자인 발전에 기여하는 인재 양성에 힘쓸 예정이다.

2024년, 제38회 교내 영어경시대회 성료

NEWSLETTER



"학생들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위한 지속적 노력"

일자 | 2024. 11. 24. (일)
장소 | 탐구관 교양교육원 강의실

대전보건대학교 교무처 직업교육혁신센터는 매년 10월과 11월 사이에 교내 영어경시대회를 개최하며 학생들의 영어 실력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 2024년 교내 영어경시대회는 11월 24일 대전보건대학교 탐구관 6층에서 진행되었으며, 115명의 학생들이 참가했다. 이번 대회는 ETS 정규토익(TOEIC)으로 진행되어, 참가자들에게 실제 영어 시험 경험을 제공했다. 또한 모든 참가자에게 응시료의 50~100%를 지원하며 경제적 부담 없이 대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교내 영어경시대회 성적은 12월 5일에 발표되었고, 시상식은 12월 6일 대전보건대학교 부속실에서 진행됐다. 이정화 총장이 시상식을 진행하며 뛰어난 성적을 거둔 학생들에게 축하의 말을 전했다. 대표 수상자는 간호학과 2학년 이희원 학생으로, 965점이라는 고득점을 기록하며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이 대회에서는 간호학과, 보건행정학과, 물리치료학과 등 다양한 학과의 학생들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대전보건대학교 교무처 직업교육혁신센터는 재학생들의 외국어 능력 향상을 위해 집중어학교육,HiT Language Learning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들은 학생들이 글로벌 사회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정화 총장은 시상식에서 "영어 능력은 국제 사회에서 중요한 경쟁력이며, 다양한 분야에서 학생들의 직업적 기회를 넓혀줄 수 있는 자산"이라며 학생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이번 교내 영어경시대회는 학생들에게 영어 실력을 평가하고 자신감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중요한 행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대전보건대학교는 앞으로도 재학생들의 외국어 능력 향상을 위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과 경시대회를 더욱 활성화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학생들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취업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낼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2024년, 총동문회 송년의 밤 개최

NEWSLETTER

"한해를 마무리하는 화합의 시간"

일자 | 2024. 12. 14. (토)
장소 | 대전 문화예술네트워크 협동조합

지난 12월 14일 대전 동구에 위치한 DCAN센터(대전문화예술네트워크협동조합)에서 2024년 총동문회 정기운영위원회 및 송년의 밤 행사를 성대하게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한 해를 마무리하며 동문과 대학 관계자들이 모여 화합과 소통의 시간을 가지는 자리로 마련됐다.

1부에서는 정기운영위원회를 통해 동문회의 주요 운영 사항과 발전 방향을 논의하고 2부 송년의 밤은 개회사를 시작으로 대학과 동문들의 성과를 돌아보며 화합과 격려의 시간을 가졌다. 축사에서 대전보건대학교는 그동안 전문 인재를 양성하며 국가와 지역 사회의 발전에 기여해 온 대학의 역할을 강조했다. 특히, "우리 대학이 이룬 성과는 교수진과 재학생들의 노력뿐만 아니라,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빛나는 발자취를 남긴 동문 여러분의 공로 덕분이다"라고 동문들의 가치를 높이 평가했다.

이날 행사에서 총동문회는 앞으로도 서로의 성장을 도우며, 학교와 지역 사회가 동반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대전보건대학교의 명예를 드높이고, 후배들에게 더 나은 배움의 장을 만들어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이러한 다짐은 동문 간의 유대감과 학교에 대한 자부심을 더욱 강화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대전보건대학교 이정화 총장은 송년사를 통해 이번 행사의 의미를 되새기며 동문과 관계자들에게 깊은 감사의 뜻을 전했다. "오늘 자리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이 만남이 우리 모두에게 뜻깊고 행복한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대전보건대학교의 무궁한 발전과 동문 여러분 및 그 가족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한다"는 말로 인사를 마무리하며, 참석자들에게 큰 박수를 받았다.

이번 행사는 동문 간의 화합을 도모하고 대학과 동문회의 비전을 공유하는 자리로 평가받았다. 특히, 대학의 발전에 기여한 동문들의 활약과 헌신이 재조명되며 그들의 노력에 대한 감사와 존경을 표현하는 뜻깊은 시간이 되었다. 대전보건대학교 총동문회는 앞으로도 정기적인 소통과 교류를 통해 대학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지역 사회 공헌에 앞장설 것을 다짐했다. 이번 행사가 대학과 동문회 간의 연대를 한층 강화하고, 모두가 함께 성장하는 미래를 만들어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2024년, 동물보건사 1주기 신설기관 인증 획득

NEWSLETTER

"대전보건대학교 반려동물과, 동물보건사 인증으로 전문 교육기관으로서의 입지 확립"

기간 | 2024. 12. 17. (화) ~ 2025. 12. 16. (화)
학과 | 반려동물과



대전보건대학교 반려동물과는 최근 동물보건사 1주기 신설기관 인증을 획득하여, 반려동물 보건 분야의 전문 교육기관으로 자리매김했다. 이 인증은 동물보건사 양성에 필요한 교육 시스템과 실습 환경을 갖춘 결과로, 인증 기간은 2024년 12월 17일부터 2025년 12월 16일까지이다. 동물보건사는 반려동물의 건강 관리와 복지 증진을 담당하며, 대전보건대학교는 최신 실습 장비와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대전보건대학교 반려동물과는 동물보건사 자격증 취득을 목표로 맞춤형 실습 교육과 심화 학습을 강화하여, 졸업 후 학생들이 현장에 바로 투입될 수 있는 역량을 키우고 있다. 이를 통해 학교는 동물보건사 양성기관으로서의 자격을 확립하고, 교육 수준과 실습 환경이 국가적으로 인정받았다.

이정화 총장은 이번 인증을 "반려동물과의 전문 교육 역량을 인정받은 값진 성과"로 평가하며, 향후 학생들이 국내외 반려동물 보건 분야를 선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임을 밝혔다.

반려동물 산업의 급성장과 함께 동물보건사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대전보건대학교는 이러한 변화에 맞춰 최선을 다해 동물보건사를 양성하고 있다. 학교는 최신 실습 장비를 통해 학생들에게 실무 능력을 기를 기회를 제공하며, 취업 연계 및 다양한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졸업생들이 현장에서 바로 적응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앞으로도 대전보건대학교 반려동물과는 교육의 질을 높이고, 반려동물 산업의 성장에 기여하며, 지역사회와 국가의 반려동물 보건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2024년, 여자 소프트볼 팀 창단식 개최

NEWSLETTER

"여자 소프트볼 팀 창단, 지역사회와 대학 체육 발전 기여"

일자 | 2024. 12. 19. (목)
장소 | 대학본부 HiT포럼

대전보건대학교는 지난 12월 20일 대학본부 B3 HiT 포럼에서 여자 소프트볼 팀 창단식을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이번 창단식은 여자 소프트볼 팀의 출범을 기념하는 자리로, 팀의 목표와 비전을 지역사회와 공유하고 대전보건대학교의 체육 발전을 위한 첫 걸음을 내디딘 중요한 의미를 가진 행사였다.

대전보건대학교 여자 소프트볼 팀은 스포츠건강관리과 소속으로, 감독 1명과 선수 9명으로 구성된 10명의 팀이다. 팀 창단의 목적은 우수 선수를 영입하고, 전국체전에서 성과를 거두는 것이다. 이를 통해 대학 체육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 체육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이번 창단을 통해 체육 선순환 구조를 마련하고, 생활체육과 전문체육의 경계를 허물며, 지역사회의 체육 수준을 향상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이정화 총장은 창단식에서 "여자 소프트볼 팀 창단은 대학 체육 발전과 지역사회의 긴밀한 협력을 위한 새로운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며 더욱 큰 성과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한, 대전보건대학교가 이번 창단을 계기로 체육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고, 생활체육과 전문체육을 넘나드는 실질적인 체육 환경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창단은 단순한 팀의 출범을 넘어, 대전보건대학교가 체육 분야에서 더욱 경쟁력을 갖추고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성장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대전보건대학교는 2026학년도부터 신입생 우선 선발 제도를 도입하여 여자 소프트볼 팀의 경쟁력을 더욱 높일 계획이며, 이를 통해 팀은 더욱 우수한 성과를 거두고 대학 체육 발전과 지역 체육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으로 대전보건대학교 여자 소프트볼 팀이 전국체전에서 뛰어난 성과를 거두고, 대전 지역 체육의 미래를 밝히는 중요한 역할을 하기를 기대한다.

축하드립니다.



HIT ISSUE

2024년, 작업치료학과 국가시험 전원 합격 및 수석합격자 배출

NEWSLETTER

"대전보건대학교 작업치료학과, 100% 합격으로 우수성 입증"

학 과 | 작업치료학과
시험명 | 제52회 작업치료사 국가시험



대전보건대학교 작업치료학과가 제52회 작업치료사 국가시험에서 응시생 전원 합격을 달성하며 학과의 우수성을 입증했다. 특히, 이번 시험에서는 김다한 학생이 240점 만점에 240점을 기록하며 수석 합격의 영예를 안았으며, 이는 학과와 대학의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이 만든 성과로 주목받고 있다.

대전보건대학교 작업치료학과는 실무 중심의 전문 작업치료사 양성을 목표로 최신 실습 장비와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국가시험 대비를 위해 학습 지원, 모의시험, 1:1 교수 지도 등 다각적인 학습 환경을 제공하며 학생들의 역량 강화를 도모해왔다. 이와 같은 철저한 준비 과정이 학생들의 높은 합격률로 이어졌으며, 김다한 학생의 수석 합격은 그 노력의 결실을 더욱 돋보이게 한다.

김다한 학생은 "이번 성과는 개인의 노력뿐만 아니라 교수님들의 세심한 지도와 지원 덕분에 이룬 결과"라며, "학과에서 제공하는 교육 프로그램이 실무와 시험 준비 모두에 큰 도움이 되었다"고 말했다. 수석 합격을 한 김 학생은 또한 "앞으로도 작업치료사로서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하며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힘쓰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정화 총장은 "학생들과 교수진의 끊임없는 노력 덕분에 이번 성과를 이룰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전문성을 갖춘 보건의료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작업치료학과는 매년 높은 국가시험 합격률을 기록하며 보건의료 분야의 선도적인 학과로 자리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제52회 작업치료사 국가시험에서의 성과는 대전보건대학교 작업치료학과가 앞으로도 국내외에서 더욱 인정받는 보건의료 전문 교육기관으로 성장하는 데 큰 기틀이 될 것이다. 학과는 지속적으로 보건의료 분야의 발전을 선도하며, 많은 학생들이 전문적인 작업치료사로서 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2024년, 물리치료학과 국가시험 수석 합격자 연속 배출!

NEWSLETTER

"95%의 높은 합격률, 수석 합격자 배출로 더블크라운 달성"

학 과 | 물리치료학과
시험명 | 제52회 물리치료사 국가시험

대전보건대학교는 2024년 제52회 물리치료사 국가시험에서 95%의 높은 합격률을 기록하며 뛰어난 교육 성과를 입증했다. 전국 평균인 76.8%를 크게 상회하는 합격률을 기록한 가운데, 물리치료과의 정훈식 학생이 전국 수석을 차지하는 쾌거를 이루었다.

대전보건대학교는 2022년에도 국가시험 수석을 배출한 바 있으며, 올해 역시 수석 합격자를 배출하며 보건의료 인재 양성의 명문 대학으로서의 입지를 더욱 공고히 했다. 이 같은 성과는 체계적인 교육 시스템과 학생 맞춤형 학습 지원, 실습 중심의 커리큘럼 덕분에 가능했다. 학교는 물리치료학과의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이 현장 실무 능력을 강화하고, 이론과 실습을 연계한 교육을 제공하여 물리치료사로서의 전문성을 키워왔다.

정훈식 학생은 "학교의 우수한 교육 환경과 교수님들의 열정적인 지도 덕분에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고 소감을 전하며, "앞으로 물리치료 분야에서 전문성을 발휘해 사회에 기여하고 싶다"고 밝혔다. 정 학생의 수석 합격은 대전보건대학교 물리치료학과의 교육과정이 학생들의 능력을 효과적으로 발전시켰음을 잘 보여준다.

이정화 총장은 "이번 성과는 학생들의 노력과 교수진의 헌신이 만들어낸 값진 결과"라며, "앞으로도 보건의료 분야에서 최고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전보건대학교는 실습 중심 교육과 최신 시설을 통해 학생들이 실무 능력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돕고 있으며, 이를 통해 물리치료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전문가를 배출하고 있다.

이번 물리치료사 국가시험에서 보여준 성과는 대전보건대학교가 보건의료 분야에서의 리더로 자리잡을 수 있는 중요한 발판이 될 것이다. 학교는 앞으로도 더 많은 학생들이 전문 물리치료사로서 현장에서 활약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교육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예정이다.





유쌤도시 대전, 현지인이 추천하는 빵 맛집

Recom

1 성심당

완전추천!

위치

1. (본점) 대전 중구 대종로480번길 15
1-1. (대전역) 대전 동구 중앙로 215 대전역사 2F
1-2. (롯데백화점 대전점) 대전 서구 계룡로 598 1층
1-3. (DCC점) 대전 유성구 엑스포로 107

추천메뉴

명란바게트 (3,800원)
김치찹쌀주먹밥 (2,300원)
아몬드크로와상 (3,500원)
보문산메아리 (6,000원)
케이크 시루 4종 (43,000원)





2 관저당

잠봉뵈르 맛집!

위치

대전 서구 구봉산북로21번길 11
(대전 서구 관저동 1963-6)

추천메뉴

잠봉뵈르 (7,500원)
피스타치오롤 (5,500원)



3 한스브레드

108겹 크루아상 식빵 맛집!

위치

3. (본점) 대전 유성구 월드컵대로316번길 17
3-1. (관저동점) 대전 서구 관저동로 170

추천메뉴

크로와상 식빵 (16,000원)
크림 단팥빵 (3,300원)